

세계적인 패키지 명품 만들겠다

홀로그램 스크린 인쇄기법 특허 획득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크린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성호프린트(주)의 최용석 사장의 일성이다. 최 사장은 최근 홀로그램 스크린 인쇄기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에 여념이 없다.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없는 세계 최초의 발명품으로 세계적인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호프린트의 최용석 사장이 개발, 특허를 획득한 홀로그램 스크린 인쇄기야말로 한국에서 만든 가장 한국적인 제품이며, 세계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나이 40세. 경영자치고는 젊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경력과 실력은 만만치 않다. 20년에 가까운 경력이 실력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주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있었던 최 사장은 어찌 보면 지금의 길을 어려서부터 걸어온 것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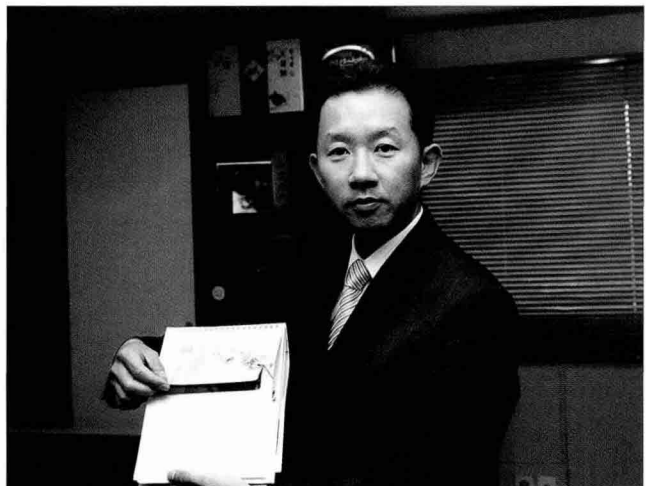
닌가 싶다. 학생시절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력을 갖추고 또한 수상경력까지 지니고 있는 최 사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기업에서 패키지디자인 작업을 하는 한편 서울 충무로 기획실에서 디자인실장을 맡는 등 한 길을 걸어 왔다. 결국 스크린인쇄 회사에 근무하면서 창업의 꿈을 키워 지난 1996년 드디어 창업하기에 이른다.

계획은 치밀하게, 행동은 빠르게 창업 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급성장하게 됨으로써 창립

5년만인 2001년에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사옥을 준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최용석 사장은 매일같이 현장에 들러 작업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자신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내집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와 직원들이 살집인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어진다면 문제가 되겠기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참견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석 사장이 자신이 특허를 출원한 '업서로 활용되는 캘린더'를 보여주고 있다.



캘린더(좌측)와 캘린더로 사용하고 나서 엽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우)

최 사장은 행동함에 있어 계획은 치밀하게 시간을 두고 하지만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 성격상 한번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고야 마는 최 사장은 사옥을 만들 당사가 겨울이어서 폭설이 잦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해 제 날짜에 원하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아담해 보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성호프린트의 사옥은 인쇄사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디자인 회사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이는 디자인이 전문인 최 사장의 취향이 아닐까 싶다.

디자인과 스크린인쇄 기술 접목으로 특허 출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호프린트는 최근 홀로그램 스크린 인쇄기 특허와 관련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것은 넓은 범위에서는 인쇄기이지만 핵심기술은 다이아기법(Dia Type)이다.

최용석 사장이 그 동안의 디자인 경험과 스크린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타입의 인쇄기법을 개발,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홀로그램 효과와 반짝이 효

과, 엠보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인쇄기법이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잉크(다이아 잉크)도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이 기법은 인쇄 시 다이아몬드 빛과 같은 화려한 광택을 발산하고 질감과 촉감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것과 같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기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것은 굵거나 벗겨지지 않는 다이아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인쇄기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될 다이아 기법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인쇄기법으로 포토기법(Photo Technic)이 있다.

이 또한 최 사장이 특허 출원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인쇄물과 사진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써 인쇄물과 사진에 대해 차분함과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요철이 있는 표면을 형성해 기존의 일반 에칭인쇄기법이 가지고 있던 손자국과 지문으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점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돌출되어 있는 코팅층의 촉감이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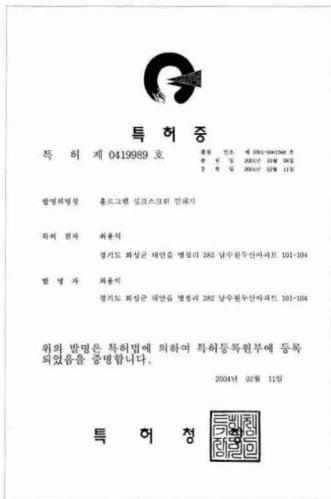
우 인상적이다.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엽서 캘린더 개발

최용석 사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라미네이팅 대신 UV코팅인쇄를 권하고 있으며, 라미네이팅을 대체하기 위해 다이아기법과 포토기법을 개발했다. 이로써 재활용이 가능하게 돼 환경 보호에 일조하게 되었다.

최 사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회성이라 할 수 있는 캘린더도 사용이 끝난 후에 일부를 엽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엽서로 활용되는 캘린더'를 개발했다.

이 캘린더는 특정 부분에 엽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어 떼어낼 경우 그림엽서로 활용이 가능해 재사용의 의미와 예쁜 그림엽서를 얻을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이 캘린더는 탁상용, 벽걸이용, 자동차용 등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에 특허를 획득했거나 특허 출원 중인 다이아기법과 포토기법을 이용해 인쇄함으로써 고급스러움과 특이한 질감으로 인해 한층 격을 높여주기까지



해 마케팅 수단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최 사장은 이 밖에도 정보제공 기능을 갖는 이중지 캘린더, 메시지 카드를 구비한 캘린더 등 캘린더 관련 실용신

안을 다수 출원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기법과 상품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 사장은 개발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다이아쇼핑몰 만드는 게 꿈
 최용석 사장은 패키지의 명품을 만들고 그 명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드는 게 꿈이다.

명품이 주로 외국의 상품이어서 거부감도 있지만 누구나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패키지도 명품이 있어 한번 가져봤으면, 그리고 저기에 내 상품을 담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명품만을 담은 패키지 명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 사장이 개발한 다이아기법과 포토기법을 적용해 패키지를 만든다면 명품 위조방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명품의 품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패키지디자인이 뒷받침된다면 금상첨화.

비록 명품은 외국 상품이지만 패키지는 한국의 것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최 사장이 바로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며, 이런 패키지 명품들을 만들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또한 목표이다.

명품보다 더 명품다운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최 사장은 목표가 뚜렷하고 그를 위한 계획도 세워졌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

(문재호부장)

단오 (음력 5월 5일, 2004년 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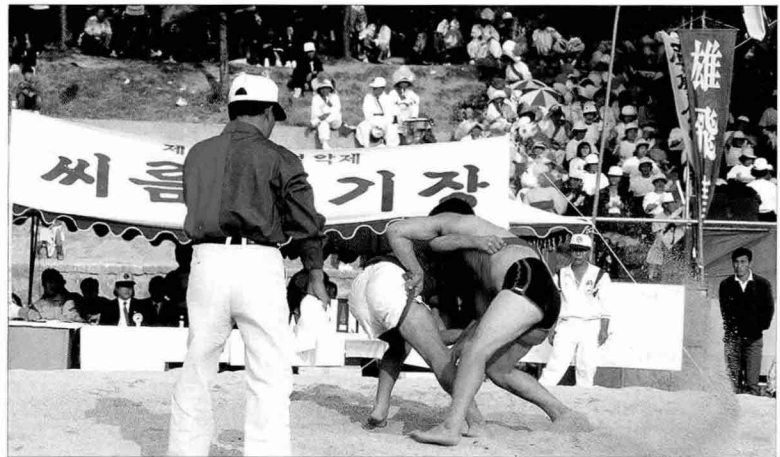
유래

우리나라 4대 명절(설, 한식, 단오, 추석)의 하나로 수릿날,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五節)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져 왔으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祇豊際)이기도 하다.

중국 초나라 회왕(懷王)때 굴원(屈原)이라는 신하가 간신들의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보이기 위하여 먹라수에 투신자살하였는데 그날이 5월 5일이었다. 그 뒤 해마다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단오가 되었다.

풍속

창포(菖蒲) - 단오날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있고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주로 여자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창포를 삶은 때는 썩을 함께 넣어 끓이기도 했다.



단오날 아침에 상치위에 묻은 이슬을 털어내어 세수를 했다.

오시목욕 - 단오 전날 저녁 물을 길러 두었다가 단오날 오시에 무병장수를 바라며 목욕을 하였다.

단오장 - 창포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꽃기도 하였으며 양쪽에 붉게 연지를 바르거나 비녀에 수(壽)·복(福)자를 써서 복을 빌기도 하였음

단오놀이 - 썩과 익모초뜯기, 부적만들어붙

이기, 대추나무시집보내기, 단오비녀꽃기, 그네뛰기, 씨름, 널뛰기, 활쏘기, 화초놀이, 돌싸움 등이 있다.

단오선 - 단오날이 되면 더위가 시작되므로 왕이 직접 각 재상이나 시종들에게 헌납받은 부채를 하사했던데서 유래되어 서로 부채를 선물했다.

단오음식 - 단오떡이라하여 썩떡, 수리치떡을 해 먹으며, 단오날 아침 이슬맺은 썩과 익모초를 베어 말리면 약이 된다.